

새내기 유권자를 위한 선거 가이드북

행복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선거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

 선거연수원
Korean Civic Education Institute for Democracy

꿈을 아느냐

네게 물으면 플라타너스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아란 하늘에 젖어 있다

- 김현승 「플라타너스」 中



새내기 유권자를 위한 선거 가이드북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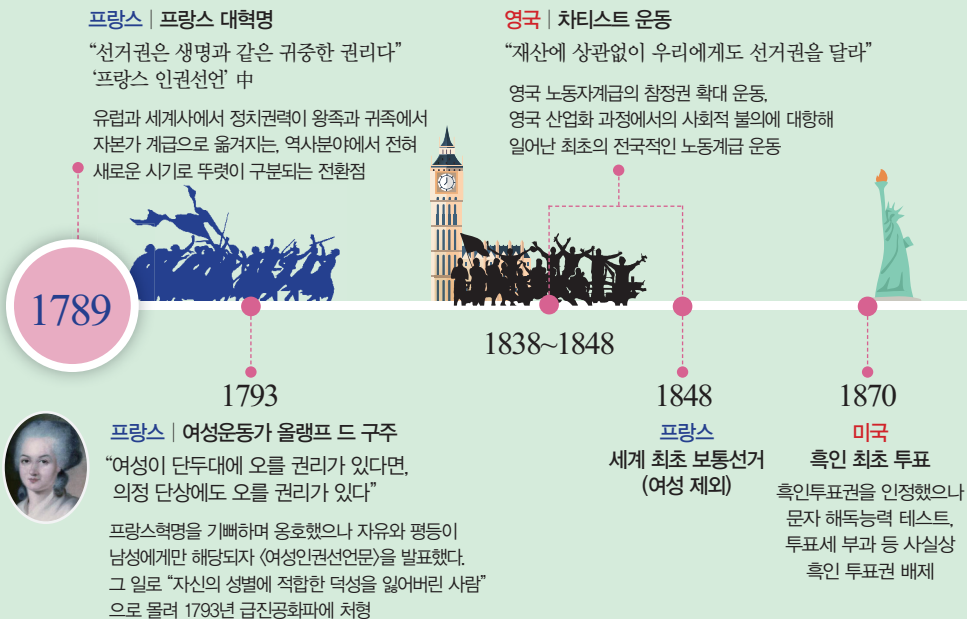
Contents

01 • 나는 대한민국의 주인	6
02 • 리바이어던에서 민주주의로	8
03 • 최선의 선택, 민주주의	10
04 • 선거는 축제 - '누가 누가 만들까?'	12
05 • 공직선거의 종류	14
06 • 투표의 방법	15
07 • 후보자의 공약, 값비싼 물건 고르듯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20
08 • 한 표의 중요성	22
09 • 정치 참여 방법	27
10 • 성인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28

민주주의의 역사가 긴 서구에서도 여성, 노동자, 흑인들은 오랜 시간동안 ‘투표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헌법에서 남녀의 차별 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인정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투표권을 갖고 나서부터 그들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일부 계층’만을 위한 정치가 아닌 ‘모두’를 위한 ‘민주정치’가 이뤄지게 된 것, 즉, 모두가 국가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갖게 되기까지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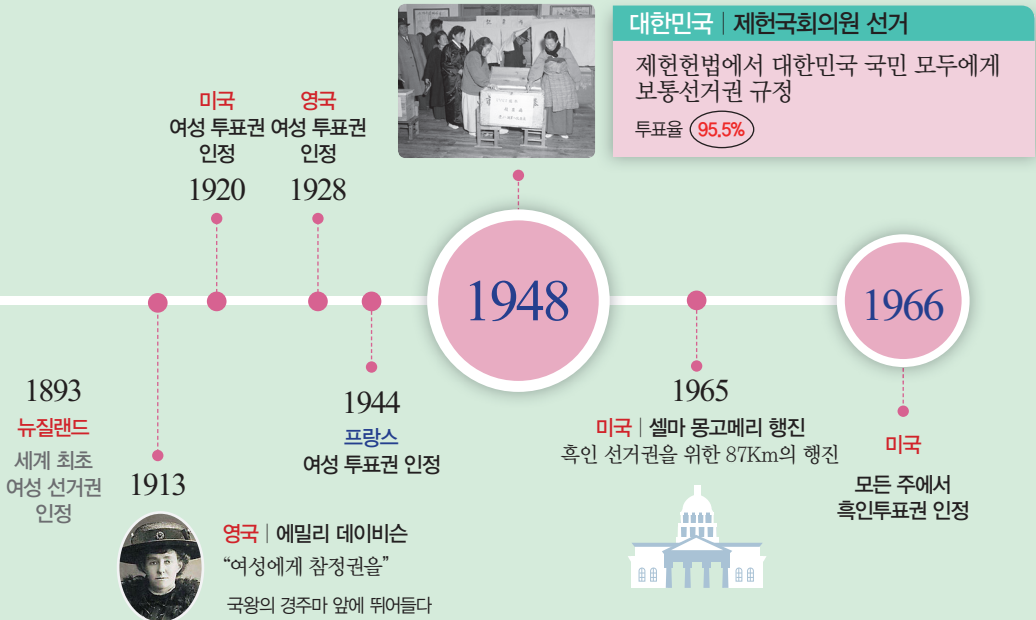
혹시, '나' 에게 주어진 참정권의 가치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투표와 그 이상의 국민 참여를 만들기 위해 희생하고
투쟁한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투표권은 국민으로서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주인인가?

“스스로 책임감이 있는 자는 **주인**이요,
책임감이 없는 자는 **나그네**이다”

- 도산 안창호



‘민주주의’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들은 ‘민주주의’가 없었던 시대를 상상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민주주의’는 역사속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리바이어던 *leviathan*이란?

토마스 홉스가 쓴 책의 제목으로 ‘강력하고 거대한 것’이란 뜻을 가졌으며, ‘성서에 나오는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동물’을 나타내기도 함.



장 자크 루소
(1712~1778. 프랑스)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동의로 법률과 같은 ‘일반의지’를 만들고, 이 ‘일반의지’에 의해 통치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개인의 자연권과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는 루소의 사상은 지금의 민주주의 사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존 로크
(1632~1704. 영국)

홉스와는 달리 계약 관계에서 생명·자유·재산 등의 자연권을 지배자에게 위양하지 않고 개인이 가지며, 군주가 계약을 유린하는 경우에는 군주의 통치권을 되찾아 올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17세기 말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탄생한 입헌정치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토마스 홉스
(1588~1679. 영국)

『**리바이어던**』에서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국가가 필요한데, 이 ‘국가’는 ‘개인’과의 계약에서 만들어진다는 ‘사회계약론’사상을 최초로 주장하였습니다.

국가설립과 동시에 개인의 주권은 절대 군주에게 양도 하고, 절대복종해야 한다고 하여 17세기 절대왕정시대를 정당화하였으나 이후 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람들'

최선의 정치체제 “민주주의”



존 스튜어트 밀
(1806~1873. 영국)

밀은 「자유론」에서 개인은 책임있는 절대적인 자유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개인에 대한 국가권력의 한계, 다수의 횡포금지 및 소수의견 존중, 사상과 토론의 자유등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생각한 민주주의〉

- '국민의' of the people
- (국민주권) 정치권력은 국민에게
- '국민에 의한' by the people
- (국민자치) 정치 주체는 국민인
- 국민을 위한 for the people
- (국민수익)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링컨(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1863년 게티스버그의 연설에서 한 역사적인 어록으로, '민주주의'의 정의를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생각을 나눠주세요!

진짜 민주주의 VS 가짜 민주주의

매키버(미국의 사회학자, 1882~1970)가 제시한
진짜 민주주의 구분방법

1. 사람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반대사를 밝혔을 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2.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나요?
3. 정치권력을 가진 정당이 자유롭게 반대 투표를 할 수 있나요?
4. 정치권력을 가진 정당이 반대하는 투표가 다수일 경우 정부가 권력에서 물러날 수 있나요?
5. 위 선거가 헌법에 근거하여 제대로 진행되나요?

YES or No?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민주주의' 인데요,
왜 '민주주의' 가 대세가 되었을까요?

○ 정치권력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힘'으로서 사회를 통합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함.

· 정당성 부여 방법에 따라

전체주의 개인보다 집단의 이익을 강조하여 집권자의 정치 권력이 국민생활 모든 영역에 걸쳐 전면적인 통제를 가하는 정치체제
예) 독일 나치즘, 이탈리아 파시즘, 일본 군국주의

권위주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통치체제
예)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 우리나라 1970년대 유신정권

민주주의 국민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나라를 이끌어가고 정치인들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며, 자유와 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정치체제, '최선의 정치체제'

예) 고대 그리스 아테네, 근대시민혁명을 이룬 영국, 프랑스, 미국

생각해보기

다양한 정치체제 가운데 민주주의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정치권력이 행사되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 이라고 말합니다.
다수의 의사가 반영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요?

-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
- 충분한 정책 이해
- 모두에게 평등한 투표

유럽의 270년간
시민혁명 운동

여성, 노동자, 흑인의
선거권 운동

약 30여년간의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

오랜 시간동안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희생하였던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체제하에서도 불평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법 또한 민주주의 원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Tip

세계 3대 시민혁명

- 영국 명예혁명(1688~1689)
→ 권리장전
- 미국 독립혁명(1776~1783)
→ 독립선언문
- 프랑스 대혁명(1789~1794)
→ 프랑스 인권선언

Tip

아시아 최초의 시민 혁명, 4.19혁명



1964년 이승만 정부는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을 폐지하는 등 종신 대통령제의 길을 열어 놓음. 이는 곧 3.15 부정선거로 이어지게 되어 국민들은 그에 대한 저항으로 1960년 4.19혁명에 나서게 되었다.



민주주의가, 앞으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내일의 민주주의는 여러분이 만들어 갑니다.

'선거'는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정치 과정'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그 나라의 정치문화를 엿볼 수 있고, 정치권력과 정치과정의 변화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정치 참여자들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 시민(유권자)

지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고, 공약을 꼼꼼히 살펴 올바른 정책결정을 하는 최고의 주권행사자입니다.

○ 정당과 후보자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하고 여론을 모아 정책을 만들며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통해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 정정당당한 경쟁을 합니다.

투표함 속 아름다운 세상

공감과 소통을 통해 유권자가 함께 참여하는 '희망'의 선거 공명선거를 넘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축제'의 선거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 모두가 승복하는 '화합'의 선거

우리는 이를 '아름다운 선거'라 부릅니다.





○ 언론

선거상황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올바른 선거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 시민단체

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는 동시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반대로 낙선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헌법과 선거법에 따라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고, 불법선거운동을 예방 및 감시·단속하며 국민의 민주시민의식을 고취하여 투표참여를 제고하는 일을 합니다.

이처럼, ‘선거’는 다양한 사람들의 역동적인 참여로 이뤄지게 됩니다. ‘선거’는 정치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축제의 장’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제, 여러분도 ‘선거 축제’에 함께 참여해요!!

05

공직선거의 종류

선거의 종류	피선거권	정수	임기
대통령	만40세이상	1인	5년
국회의원 (지역구/비례대표)	만25세이상	300인	4년
지방자치 단체장		1인	
지방자치 의회의원 (지역구/비례대표)		법률 · 조례	
교육감		1인	

비례대표란?

비례대표선거란, 국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을 뽑을 때 정당에 투표하여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의 방식입니다. 각 정당이 여성, 청년, 다문화 등 다양한 집단의 대표자가 포함된 비례대표후보자명부를 제출하면 정당 득표수에 비례하여 명부순으로 의석을 배분합니다.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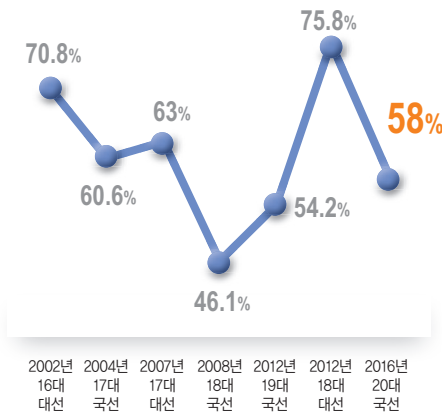
투표의 방법

유권자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투표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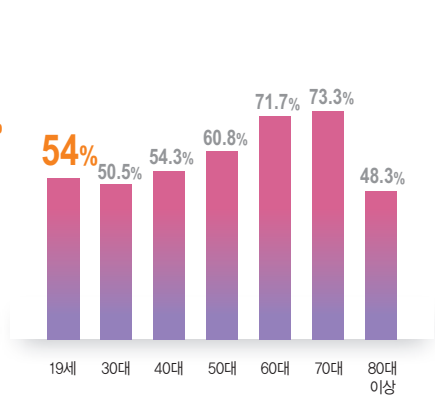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투표하세요!

투표일 당일에는 ... 선거일투표 p16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 사전투표 p18	외국에 살고 있거나 해외여행 중이라면 ... 재외투표 p18	투표일에 승선 중인 선원이라면 ... 선상투표 p18	투표소에 나올 수 없다면 ... 거소투표 p18
-------------------------------------	--	--	--	---

| 역대 선거 투표율 현황 |



| 2016년 20대 국선 연령대별 투표율 |



선거일투표

④ 투표용지에 기표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서 비치된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원하는 후보자 또는 정당에 기표합니다.

③ 투표용지 수령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② 선거인명부 확인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합니다.

⑤ 투표함 투입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⑥ 투표소 퇴장

이것으로 투표가 완료되었습니다.

① 투표소 입장

투표안내문에 표시된 투표소로 갑니다.

※ 자신의 투표소를 모를 경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내 투표소 찾기」를 검색해 보세요.

투표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개념국민 인증하는 투표인증샷! 하지만 투표소 안에서는 찍으면 안됩니다. 투표인증샷은 꼭 투표소 밖에서 찍도록 합니다.



투표지 촬영 금지



| 투표시간 |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

| 투표소에 있는 사람들은? |

- 투표관리관 : 투표소의 책임자입니다.
- 투표사무원 : 선거인명부 확인 등의 사무를 합니다.
- 투표참관인 : 투표를 공정히 이루어지는지 감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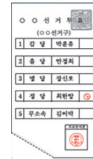
| 투표안내문 |

유권자의 주소로 공보와 함께 배달되며, 투표할 유권자 명단과 투표소명, 투표소 약도가 표시됩니다.



| 투표용지 |

원하는 후보자나 정당의 란에 정확히 기표해야 합니다. 2개 이상의 란에 기표하거나 비치된 기표용구 이외의 도구로 표시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 투표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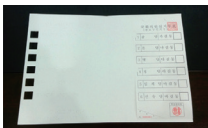
투표함은 특수봉인지를 붙인 뒤 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이 서명하여 봉합합니다. 특수봉인지는 떼어내면 무늬가 나타나서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특수봉인지



| 장애인의 투표 |



시각장애인은 투표소에 비치된 점자로 표시된 투표보조용구를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이 부자유스러운 유권자는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된 2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 사전투표기간[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금,토)] 동안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가능
- 전국 어디서나 투표



재외투표

해외여행, 유학 중이거나 재외교포 등 사전투표일 또는 선거일 현재 외국에 있는 사람

- 미리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외투표소에서 투표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만 가능

선상투표

원양어선, 외항여객선/화물선 등 선박에 승선하고 있거나 승선 예정인 선원을 위한 투표

- 선상투표신고를 한 후 선박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배 위에서도 투표



거소투표

투표소에서 먼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인·경찰이나,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있는 몸이 불편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장애인 등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

- 거소투표자신고를 한 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 자신이 살고 있는 장소(거소)에서 바로 투표

투표 Q&A

Q. 제가 투표일에 투표할 수가 없어서 사전투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전투표신청서를 내야 하나요?

A.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시면 할 수 있습니다.

Q. 14박 15일 해외여행을 가서 투표를 못하게 될 것 같아요.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미리 국외부재자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중앙선거위 홈페이지나 주민등록지의 구·시·군청에 서면, 전자우편으로 국외부재자신청서를 제출하고, 재외선거 홈페이지에서 투표소 설치상황을 확인한 후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세요.

Q. 저희 삼촌은 원양어선을 타는 선원이신데... 투표할 수 있나요?

A.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원양어선, 외항여객선/화물선에 승선중인 선원들을 위한 선상투표가 있습니다. 미리 선상투표신고서를 제출하고 배 위에서 투표하세요.

Q. 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신데 거동이 불편하세요.

투표하러 가시기 힘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위한 투표제도는 없나요?

A. 거소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할머니가 계신 시설의 장의 확인을 받아서 거소투표신고서를 제출하시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불펜 등으로 투표용지에 기표하신 후 다시 우편으로 회송하시면 됩니다.

Q. 군 복무 중입니다. 군대에서는 사전투표를 하러 간다고 하는데, 제가 사는 지역의 후보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A. 중앙선거위 홈페이지나 우편을 통해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하시면 주민등록지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보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꼼꼼히 따져 보고 투표하세요!

○ 선거벽보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곳에 게시되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등이 게재되어 있어 후보자의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선거공보

각 세대로 발송되는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정견·공약과 재산·병역 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 자세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 선거공약서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는 자신의 공약에 대한 추진계획을 선거공약서로 만들어 유권자에게 배부할 수 있습니다.

○ 정책공약집

정당은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정책공약집을 만들어 유권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따져보세요!

○ 후보자 토론회

후보자 TV토론회는 후보자간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서로의 정책을 비교·검증함으로써 유권자들이 후보자공약을 효율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정구시간에 TV로 시청하거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제공하는



'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www.debate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책·공약알리미(www.party.nec.go.kr)와 선거홍보사이트(www.vote.necpr.go.kr)에서도 후보자공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책중심 선거가 되면

책임정치
정치효율성



선거비용
흑색선전
상호비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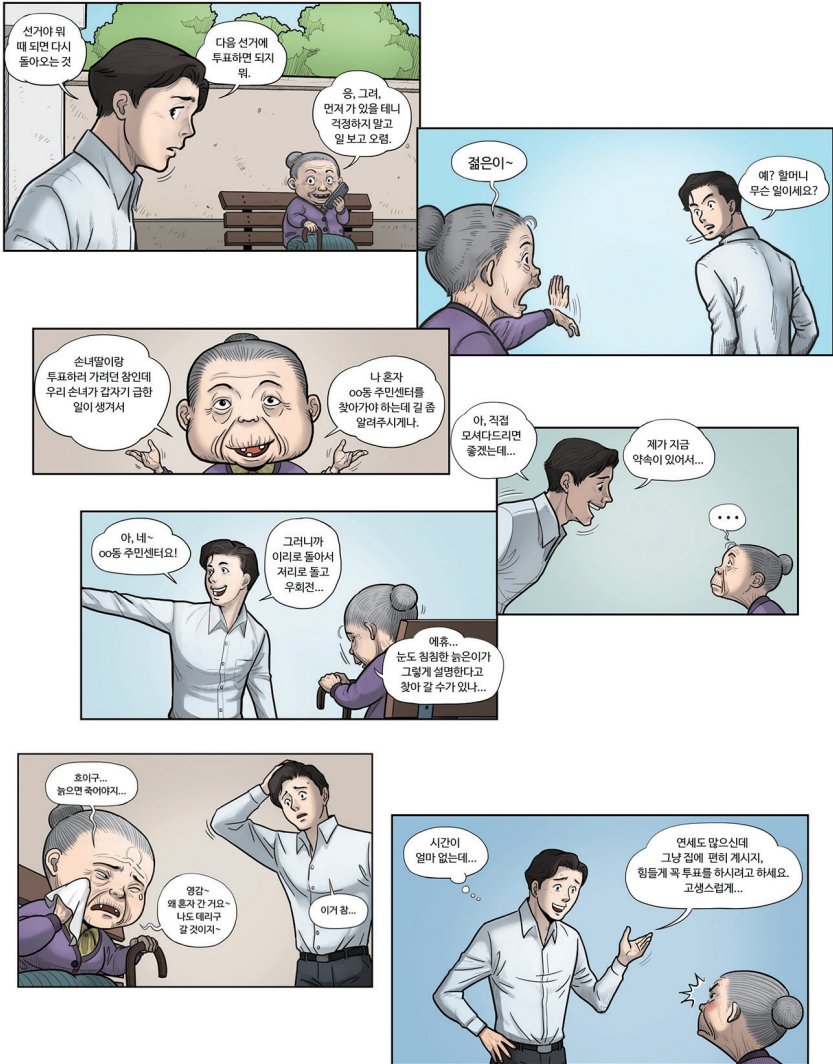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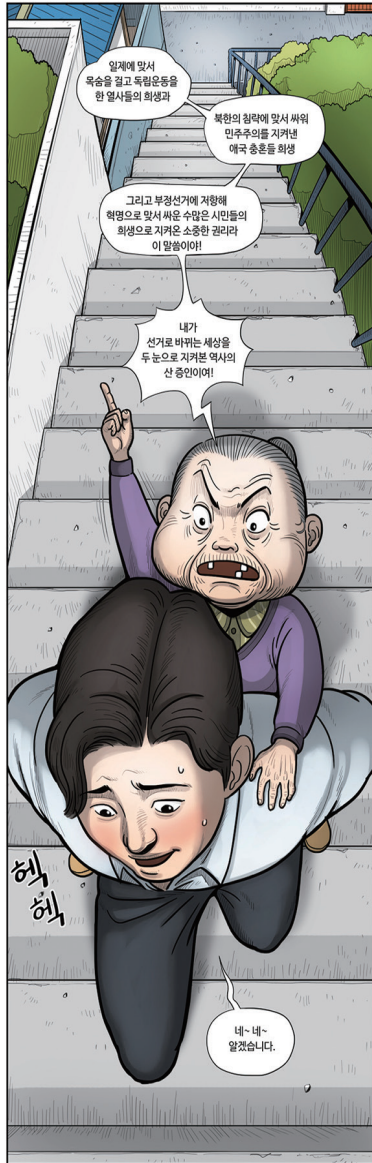
매니페스토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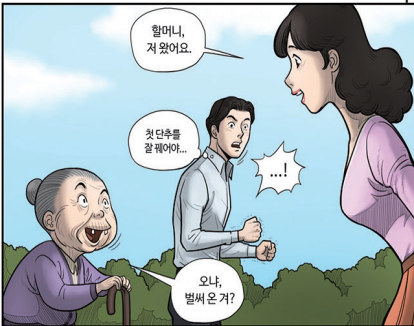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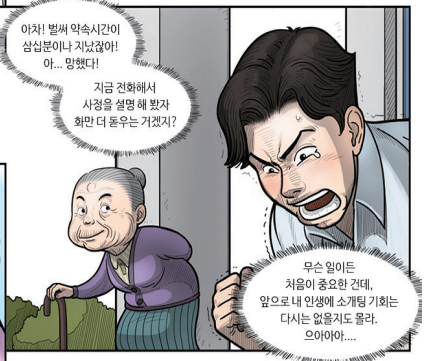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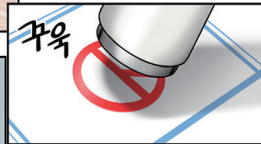
1834년 영국에서 시작, 우리나라에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 후보자가 언제까지, 얼마의 예산을 들여,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유권자는 그 공약을 꼼꼼히 살펴 투표한 후 공약이 잘 지켜지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다음 선거때 투표로 평가하는 것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소중한 약속」 (정병준)









평균값의 원리

어리석은 개인, 현명한 다수

1907년 영국, 황소무게 맞추기 대회.
일반시민 800명이 제시한 무게는 제각각이었지만, 전체의 평균값은 실제 황소 무게와 거의 일치했다.

통계학자 프랜시스 골턴은 '집단이 크면 그 평균값은 보다 정확해지기 때문에, 민주적인 판단은 믿음만하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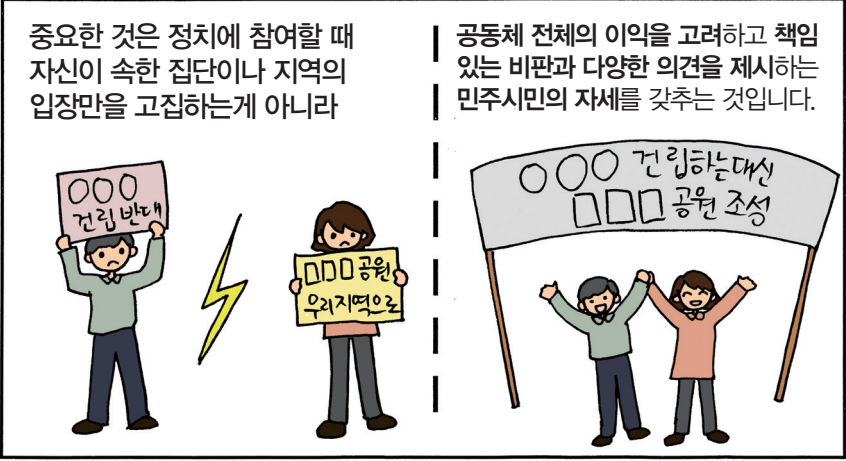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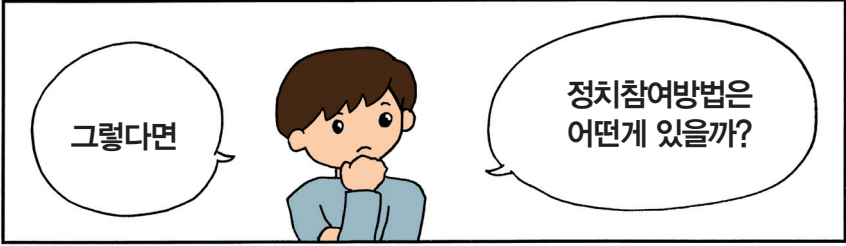
"나의 한 표가"

선거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확한 평균값을 찾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09

정치 참여 방법

글·그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크리에이터 류유진



10

성인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만17세

- 주민등록증 발급

만18세

- 부모님 동의하에 결혼
- 군대 지원 가능
- 자동차운전면허 2종 보통 취득 가능
- 공무원시험 8급 이하 응시 가능
- 「청소년 보호법」 상 만19세 미만 규제항목 금지 대상

만19세
(성년)

- 신용카드, 휴대폰 가입 가능
- 부동산, 금융 관련 서류 발급 가능
- 결혼 가능
- 근로계약 부모님 동의 없이 체결 가능
-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
- 만 19세 징병검사, 만 20세 입영 의무
-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취득 가능
- **대한민국 유권자로서 공직선거 투표참여**

꿈과 희망을 펼쳐라!

- 대학교에서 전문분야에 대하여 더 깊게 공부하기
- 스티브 잡스 등과 같이 진취적인 정신으로 도전하기
- 비슷한 관심·재능을 가진 사람들과의 동호회 활동을 통한 정보교류 또는 정보공유



나만의 특기를 살려라!

- 피아노, 바이올린, 기타 등 악기를 전문가 수준으로 연습하기
- 춤, 노래, 미술 등을 배워서 나의 장점을 최대한 알리기
- 테니스, 배드민턴, 패러글라이딩, 래프팅 등으로 몸과 마음 단련하기



글로벌 인재, 외국어 하나쯤이야!

-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외국 대학과의 교환학생 기회를 활용하기
- 캐나다, 호주 등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워킹 홀리데이
- UN 등 국제기구에 근무하기 위해 어학능력을 끌어올리기



이미지 메이킹

- 격식을 갖춘 자리엔 정장을 갖춰 입을 수 있는 예의
- 사회초년생에 어울리는 메이크업으로 개성을 살려주는 센스
- TPO에 맞는 차림으로 자신의 품격을 높이기
- ※ 허영과 사치에 빠지지 않고, 돈을 무분별하게 쓰지 않기



생활 속의 에티켓

- 행사장·공연장에서 휴대폰 끄기
- 버스, 지하철 안에서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기
- 대화나 토론 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끼어들지 않기



새내기 유권자를 위한 선거 가이드북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

발행 2016년 11월

인쇄 2016년 11월

발행처 선거연수원 (시민교육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0 [인의동 48-25]

집필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강선미, 류유진 / 선거연수원 초빙교수 이용재

전화 02-765-3496

팩스 0505-058-1165



선거연수원

Korean Civic Education Institute for Democracy